

‘은퇴자 사회보장연금’ 42년 만에 최대 인상



▲ 사회보장국(SSA)은 사회보장연금 지급액을 대폭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shutterstock

치솟는 인플레이션 속에서 미국 정부가 은퇴자에게 주는 사회보장연금을 42년 만에 최대폭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사회보장국(SSA)은 전일 은퇴자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연금의 생활물가조정분(COLA)을 내년부터 8.7% 인상한다고 밝혔다.

조정분은 도시 임금 근로자와 사무직 근로자의 소비자물가지수(CPI)를 토대로 매년 산정된다. 이번 조정분 인상은 치솟는 물가를 반영한 것으로 1981년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현재 수백만 명의 은퇴자들은 매달 평균 약 1천656달러를 받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매달 144달러가 증가하는 셈이다.

지금껏 은퇴자 사회보장연금 인상률이 8.7% 이상 오른 적은 1979년(9.9%), 1980년(14.3%), 1981년(11.2%) 세 번뿐이다. 2010~2020년엔 평균 1.7% 증가에 그쳤다.

이번 발표는 중간선거를 한 달도 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나와 상원과 하원 다수당을 뺏길 위기에 처한 정부와 여당이 은퇴자에 대한 표심을 자극하려는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미국 사회보장연금 수혜자는 은퇴자를 비롯해 장애인과 어린이 등 약 7천만 명에 달한다. 다만 은퇴했음에도 일정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연금에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미국에선 연간 소득이 2만5천 달러 미만인 은퇴 독신자나, 3만2천 달러 미만인 은퇴 부부의 경우에 한해 사회보장연금에 대한 세금이 없다.

‘링컨의 땅’ 일리노이주 시카고서 링컨 동상 수난

‘링컨의 땅’으로 불리는 일리노이주 시카고 북부 링컨파크 지구에 세워진 링컨 전신상이 페인트 투척과 낙서 피해를 당했다.



▲ 시카고 링컨파크의 링컨 대통령 동상이 수난을 당하고 있다. 사진=시카고 WGN방송 화면 캡처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건은 이틀 전(10일) 발생했다. ‘미국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대통령’으로 손꼽히는 에이브러햄 링컨(1809~1865)의 동상 어깨에는 붉은색 페인트가 뿌려졌고 동상 받침대에는 ‘식민주의자들을 퇴출하라’, ‘원주민 땅을 다시 원주민에게’ 등의 구호와 함께 바닥에는 ‘다코타 원주민 38명을 위한 복수’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다.

1887년 세워진 이 동상은 시카고에서 가장 오래된 공공 조형물 중 하나이자 시카고에 설치된 여러 링컨 기념물 가운데 하나이다.

이와 관련 ‘식민주의 폭력에 저항하는 이들’을 자처하는 한 익명의 단체는 동상 훼손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1862년 미국 정부군과 다코타 원주민 부족의 전쟁 결과로 38명의 원주민 남성이 공개 처형됐고 이 처형 명령서에 링컨 대통령이 서명한 사실을 환기, ‘콜럼버스의 날’을 ‘원주민의 날’로 기념하기 위해 동상에 대한 공격을 자행했다고 밝혔다.

링컨은 켄터키주에서 태어나 인디애나주에 살다 21세 때 일리노이주로 이사했다. 이후 1860년 제 16대 대통령에 당선돼 백악관에 입성할 때까지 일리노이주에 살았다. 이 때문에 일리노이주에는 ‘링컨의 땅’이란 별칭이 붙었고 자동차 번호판에도 링컨 얼굴과 함께 ‘링컨의 땅’ 문구가 새겨져 있다.

뉴욕 ‘자유여신상’ 왕관부 재개장



▲ 국립공원관리국은 코로나19로 폐쇄됐던 뉴욕 ‘자유여신상’ 왕관부를 재개장했다. 사진=shutterstock

코로나19 사태로 2년 반 넘게 폐쇄됐던 뉴욕 ‘자유여신상’ 왕관부에 대한 출입이 12일부터 재개됐다. 뉴욕시 기념물을 관리하는 국립공원관리국은 코로나19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2020년 3월 자유여신상 출입을 통제하던 뒤 단계적으로 출입 범위를 넓혀왔으나, 왕관부는 그동안 접근이 불허됐다.

윌리스 대변인은 시민들이 여신상 왕관부 출입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해온 지 한참 됐다고 왕관부 재개장이 이들에게 기쁜 소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공원관리국은 왕관부 출입 재개를 여러 차례 검토했으나, 뉴욕시와 뉴욕주, 연방정부의 방역 조치와 인력난 등으로 계속 미뤄져 왔다.

윌리스 대변인은 “조속히 직원을 채용해 여신상 왕관부 관광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 리버티섬에 자리한 자유여신상은 프랑스 정부가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선물로 제작해 1886년 전달한 것으로, 그해 10월 28일 제막식이 열렸다. 이곳을 관광하기 위해서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허가한 페리를 타야 한다.

자유여신상은 198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날말퍼즐 정답

	1각		2일		3삼	자	루
	4선	풍	기		살		
5호	미		6장	7작	개	8비	
의				정		9운	10항
11적	12정		13치				아
	14부	15창	부	16수		17난	리
		호		18고	갱	이	
19라	운	지		비		도	

1442호 숫자퍼즐 (이번호 정답은 P47에 있습니다)

9				8			5
		3	5				9
	4		1		9	8	
1	6				7		3
		8		4		6	
5			3				4
	8						4 5
	1			5 3	7		
7		6	4				2